

삼성투자가이드

WEEKLY MAGAZINE
SAMSUNG INVESTMENT GUIDE

FORECAST

주식시장 전망
연기금의 매매 패턴을
 뜯어보면..
삼성 TOP 10 포트폴리오
단기유망종목
실적스크린
글로벌 모니터
TECHNICAL FOCUS
CHART GALLERY
주간증시동향

INFORMATION

주요시장지표
증시캘린더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제시된 투자 의견을 인용한 투자
참고용이며 기업의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내용을 담지 않아
조사분석자료가 아닙니다.

create with you

삼성증권

SAMSUNG

임수균

02-2020-7026

sg08.lim@sams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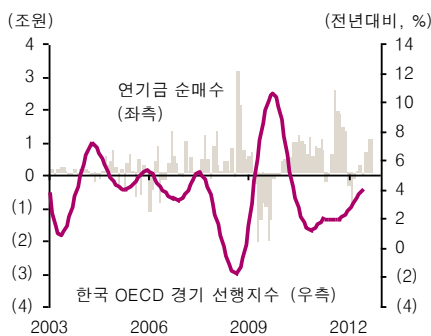
표 1. 국민연금 자금운용 목표치와 7월 현황 비교

구분	2012년 말 (목표)		2012년 7월	
	금액 (조원)	비중 (%)	금액 (조원)	비중 (%)
금융부문	396	99.9	374	99.8
주식	109	29.4	90	23.9
- 국내	77	19.3	64	17.0
- 해외	32	8.1	26	6.9
채권	251	63.3	254	67.6
총 적립금	397	100	375	100

참고: 시가 기준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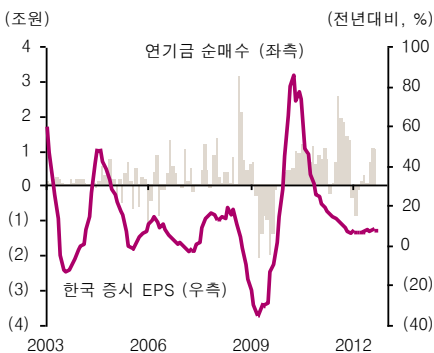
그림 1. 한국 경기선행지수와 연기금 수급



참고: 연기금의 월별 국내 주식 순매수 금액 기준

자료: OECD, 한국거래소

그림 2. 한국 기업실적과 연기금 수급



참고: MSCI Korea 12개월 선행 EPS,

연기금의 월별 국내 주식 순매수 금액 기준

자료: I/B/E/S, 한국거래소

연기금의 매매 패턴을 뜯어보면...

증시의 상승탄력 둔화 지속, 구원군은?

글로벌 증시가 미국 3차 양적완화 발표 이후 추가 상승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다.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호의적이지 못하고,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한국은행은 9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한국 경제의 실질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금년과 내년 각각 2.4%와 3.2%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기존 7월 전망 : 3.0%와 3.8%). 최근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가 다소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는 있으나, 미국 경기 회복 기대가 본격화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코스피가 재차 2,000선을 하회하면서 환매 강도가 다소 둔화되고는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의 매수세는 지지부진하고, 높아진 프로그램의 매도 압력은 증시 전반의 판망세를 부추기는 모습이다.

뭔가 다른 모멘텀이 필요한 시기로 보인다. 최근 연기금의 구원군 역할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렇게 답답한 시장에서 연기금의 집행 가능 자금이 많이 남았다는 소식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연기금의 추가 매수 여력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국민 연금의 국내주식 투자 비중은 17.0%에 불과하다. 이는 국민연금의 올해 국내주식 투자 비중 목표치 19.3%에 크게 미달하는 수치이다 (표 1). 7월말 이후 연기금에서 순매수한 국내주식이 약 2조 원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아직은 연말까지 추가 매수 여력이 상당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에서는 9월말 기준으로 국민 연금의 국내주식 투자 비중이 17.9%까지 올라왔다는 보도를 내고 있는데, 이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연말까지 연기금 자금의 추가 유입 가능성은 여전하다.

이에 따라 연말로 갈수록 연기금의 매수세가 강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점차 커지고 있는데, 이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한다. 향후 수급 전망을 위해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연기금의 순매수 패턴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어떤 요인들이 연기금의 순매수에 영향을 미칠까?

이를 위해 증시와 연기금 수급에 영향을 미칠만한 요소를 몇 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해보기로 한다.

1) 경기의 영향력 : 낮음 우선 증시 펀더멘탈에 따른 연기금의 매수 강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기 투자 성격이 강한 연기금의 특성상, 아무래도 증시의 단기 모멘텀 보다는 중장기 펀더멘탈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펀더멘탈 측면의 요소 중 경기가 연기금 수급에 미치는 영향력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국내 경기 수준을 잘 나타내는 경제지표로는 경기 선행지수를 꼽아볼 수 있다. 그러나 (그림 1)을 통해 보면 연기금 수급과 국내 경기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국내 연기금 자금의 경우 경기가 좋을 것으로 판단되면 자금 집행을 늘리는 등의 투자 패턴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기업실적의 영향력 : 낮음 다음으로는 펀더멘탈 요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꼽아볼 수 있는 기업실적과 연기금 수급의 연관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한국 기업들의 기업실적 모멘텀으로는 I/B/E/S에서 제공하는 12개월 선행 EPS를 전년대비로 살펴 보았다.

(그림 2)를 보면 잘 나타나는데 전체적인 모양은 경기선행 지수와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이는 실적 모멘텀이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겠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기업 실적의 경우도 연기금의 수급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가격 매력도의 영향력 : 높음 통상 연기금은 주가 급락 국면을 활용해 주식 비중을 높이는 전략을 즐겨 쓰는데, 사실상 이는 Valuation Play (가격 매력도가 높아지는 경우 저가 매수 관점으로 시장에 대응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세를 보이는 경우 실적 추정치를 하향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증시 PER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림 3). 연기금과 같이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는 경우, 가격 매력도가 높아진 주식을 싸게 매수해 보유하는 방식은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실제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한국 증시 PER과 연기금의 순매수세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3년 이후 한국 증시의 PER 영역별 순매수를 보게 되면 한국 증시의 PER이 8~9배 수준에 있을 때 가장 많은 연기금이 순유입되고 있다 (그림4).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 증시 PER이 8배 이하로 떨어진 적이 거의 없음을 감안해 볼 때, 연기금 수급이 한국 증시의 Valuation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최근의 주가 약세로 인해 국내 증시의 가격 매력도는 재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 주말(10월 12일) 기준 한국 증시의 PER은 8.4배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연기금 입장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4) 연기금 수급의 계절성 : 높음 다음으로는 연기금 수급의 계절성을 살펴보자. 2008년의 경우는 지수 급락 방지를 위해 인위적으로 대규모 연기금 자금이 집행된 시기이기에 2008년의 사례는 제외하고 보기로 한다.

국내 연기금 수급의 계절성을 분석한 결과는 흥미롭다. 2003년 이후 연기금의 월별 평균 순매수 금액을 보면 일반적으로 9~12월에 걸쳐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유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식 투자 목표치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즉, 지정된 주식 비중을 채우기 위해 연말에 자금 집행을 집중한 결과로 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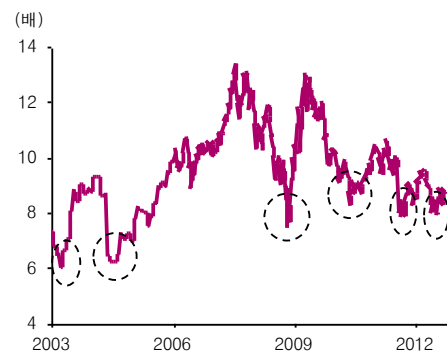
원인이야 어찌되었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그것도 연말로 갈수록 연기금 매수세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특히 지금과 같이 연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이 연간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추세적 약세보다는 제한적 횡보 흐름을 염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금년 남은 기간 동안 연기금의 수급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최근 우려를 낳고 있는 경기와 실적 등 펀더멘탈 측면의 우려는 연기금 수급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음을 확인했다. 반면 연기금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국내 증시의 가격 매력도와 계절성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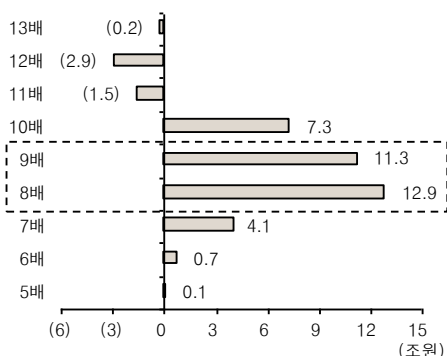
연기금 수급에 대한 기대를 증시의 강세 전망으로 연결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적어도 증시 하단의 지지력 강화에는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추세적 약세보다는 지수의 제한적 등락을 염두에 두되, 시가 총액 규모별 / 업종별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낙폭 확대 대형주에 대한 저가 매수 전략을 고려할 만한 시기로 판단한다.

그림 3. 한국 증시 PER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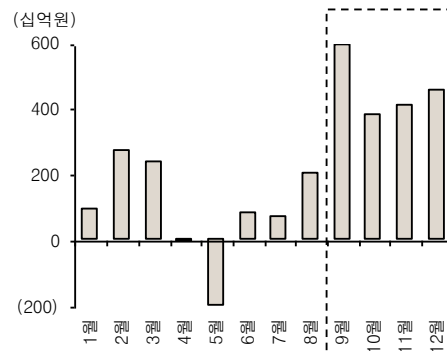
참고: MSCI Korea 12개월 선행 EPS 기준
자료: I/B/E/S

그림 4. 한국 증시 PER 구간별 연기금 순매수



참고: 2003년부터 누적
자료: I/B/E/S, 한국거래소

그림 5. 연기금의 월평균 국내주식 순매수액



참고: 2003~2012년까지 월별 평균, 2008년은 제외
자료: 한국거래소

양대용 외

02-2020-7705

daeyong.yang@samsung.com

삼성 TOP 10 포트폴리오

삼성 TOP 10

삼성 TOP 10 연간 수익률 (2012. 1. 2 ~ 10. 12)	삼성 추천 포트폴리오 +11.39%	KOSPI +5.89%	초과 수익률 +5.50%p
---	------------------------	-----------------	-------------------

신규편입: 없음

종목	주가(원)	투자포인트	편입일 (목표비중)	수익률
한국타이어 (161390)	49,600	- 천연고무 등 원재료 투입 단가 하락에 따른 영업이익률 상승 - 내년 중국-인도네시아 신공장 가동 본격화되며 외형 성장 기대	10/9 (10%)	(-0.3%)
모두투어* (080160)	25,900	- 지속적인 출국자수 증가로 Outbound 관광객의 성장세 지속 - 비즈니스호텔 개장 등 Inbound 관광 진출로 성장모멘텀 강화	10/5 (10%)	(-1.1%)
CJ제일제당 (097950)	346,000	- 곡물가 안정과 라이신 가격 반등으로 바이오 실적 회복 전망 - 가공 식품의 견조한 성장과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재평가 기대	9/21 (10%)	(+12.9%)
SK네트웍스* (001740)	9,760	- 갤럭시노트2 등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로 단말기 유통 호조 - 셀프 주유소 증대 및 주유소 복합화에 따라 E&C 수익성 향상	9/14 (10%)	(-4.3%)
파라다이스 (034230)	20,100	- 합병한 파라다이스 제주의 실적이 반영되며 수익성 견인 - 워커힐 카지노 증설·부산 카지노 인수 계획 등 외형성장 지속	9/13 (10%)	(+19.6%)
LG상사* (001120)	41,800	- 오만 광구 정상화·신규 광구 상업생산 추진에 따른 이익 개선 - 광산업체들의 감산 추진·동절기 수요 증가로 석탄 가격 회복	9/12 (10%)	(-2.7%)
LG전자 (066570)	68,200	- 2위권 경쟁업체 대비 제품 경쟁력으로 시장점유율 상승 전망 - PBR 1배 수준으로 가전사업의 경쟁력 대비 저가 메리트 부각	9/6 (10%)	(-1.7%)
NHN (035420)	269,500	- 메신저 '라인'을 통한 다수의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 기대 - 하반기 '위닝일레븐' 온라인 출시로 게임사업 실적 회복 전망	7/16 (10%)	(+6.1%)
기아차 (000270)	68,200	- 개별소비세 인하로 K3 신차 및 신형 모델 판매 증가 전망 - 유럽 내 씨드 등 주요 모델들의 선전으로 M/S 상승 기대	7/5 (10%)	(-8.5%)
삼성SDI (006400)	148,000	- 대용량 폴리머 배터리 채택 태블릿PC의 판매 물량 증가 기대 - 불확실성이 해소된 SB리모티브의 양산가동은 중장기 모멘텀	7/3 (10%)	(-1.3%)

참고: * 당사 비커버리지 종목

계열사 - 삼성SDI / ELW 발행 및 유동성공급 - 기아차, LG전자 / 자기주식 취득 - 모두투어

이 남 룡

02-2020-7035

nr.lee@samsung.com

단기 유망 종목

04

05

단기 유망 종목

종목	투자포인트	추천일 (수익률)
인포피아 (036220)	- 고령화로 인한 당뇨 시장 확대와 이에 따른 개인용 혈당측정기 시장 성장 기대 - 중국 SFDA인증 절차 완료 후 중국내 개인용 혈당측정기 판매물량 가속화 전망 - 2분기 매출채권 대손상각비의 비용처리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3분기에는 해소 전망	10/9 (+15.5%)
동원산업 (006040)	- 세계 최대 규모의 선망선을 바탕으로 참치를 어획하여 가공업체에 판매하는 업체 - 중서부 태평양 연안국들의 조업 규제로 참치 공급증가 여력 축소에 따른 반사 수혜 - 참치캔 가격 인상과 유통 채널 확대로 자회사 스타키스트의 실적 턴어라운드 지속	9/28 (+4.2%)
국순당* (043650)	- 캔막걸리 '아이싱' 출시. 젊은 연령층과 외국인 공략하며 신규 수요 창출 기대 - 中 발효주 관련 규제 완화에 따라 국산 생막걸리의 중국내 수출 가능성 점증 -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210% 상승한 120억 원 수준으로 실적 개선 전망	9/14 (+18.4%)
평화정공 (043370)	- 자동차 도어(Door) 관련 부품 및 모듈을 생산하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 - 다양한 해외 완성차 업체와의 납품 track record를 바탕으로 추가 수주 가능성 - 높은 마진율의 제품 및 해외 매출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수익성 개선 기대	9/12 (+6.4%)
현대에이치씨엔* (126560)	- 안정적인 수신료 수익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증가로 인한 영업 이익 개선 전망 -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따른 디지털 가입자 전환 증가로 총 가입자수 증가 기대 -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중소 SO업체 M&A전략으로 성장성 우려 해소 전망	8/28 (+34.9%)

참고: * 당사 비커버리지 종목

이슈 포커스

이슈	관심포인트
유통	- 정부 규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PB상품 확대·유통단계 단순화 전략으로 수익성 개선 전망 - 헬스케어·레저인구 증가와 같은 소비 변화에 맞추어 슈즈 멀티샵·드럭스토어 등 신규 매장 강화 * 관련종목: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신세계 등
카지노	- 외국인 인바운드 관광객 증가와 함께 견조한 드랍액 성장세 지속되며 수익 창출력 레벨업 - 국내외 이용객 증가에 따라 게임기구 증설 및 영업장 확대 추진하며 외형 성장모멘텀 부각 * 관련종목: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GKL 등
화장품	- 소비 불황에도 불구하고, 접근성 높은 판매 채널과 합리적인 가격대를 경쟁력으로 견조한 실적 견인 - 해외시장 내 국산 화장품 브랜드 인지도 상승 및 매출 확대 지속되며 안정적 성장세 유지 * 관련종목: LG생활건강, 에이블씨엔씨, 코스맥스 등

(註)이슈포커스에 언급된 이슈/테마 및 관련 종목은 매수추천의 의미가 아니며 전일 시장 이슈 및 상승 종목을 개략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관련 종목 투자 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실적 스크린

실 적 스 크 린

양 광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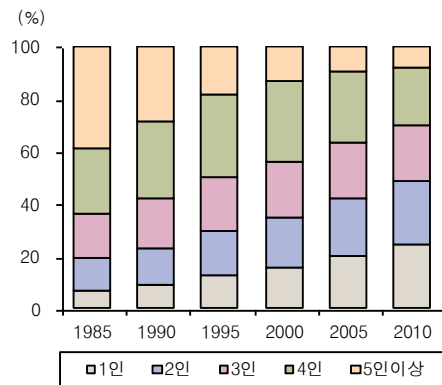
02-2020-7042

gwangmo.yang@samsung.com

소인(少人)가구, 食의 시대 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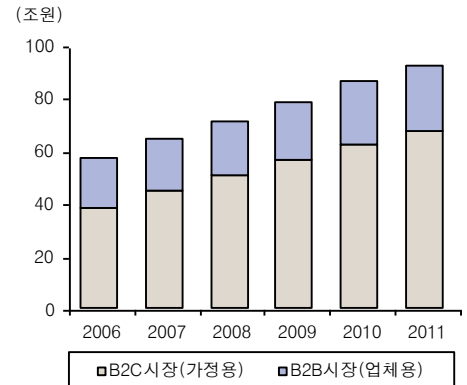
- |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1·2인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 중 50%에 육박. 결혼 연령 상승·고령화 등에 따른 소인 가구 증가는 소비 패턴 변화를 주도하며 관련 산업 성장 동력으로 작용
- | 대량구매보다는 합리적 소비와 편리성·기능성을 중시하는 경향. 외식 산업의 성장과 간편 식품·프리미엄 가공식품 구매 증가로 이어지며 대기업의 식자재 사업 확대에 유리한 환경 조성

그림 1. 한국 가구 규모별 비중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2. 국내 식자재 유통업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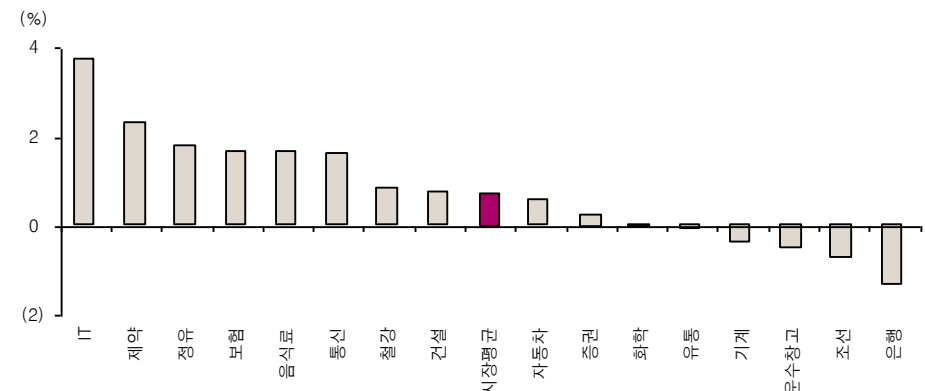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농협경제연구소

IT, 스마트 폰 효과

- | IT는 갤럭시S3·아이폰5 등 신규 스마트 폰 판매 호조로 핸드셋 및 관련 부품주 실적 개선 반영. 제약은 주력 제품 판매 호조와 외자계 업체의 품목 확대 도입에 따른 이익 개선 효과
- | 은행은 순이자마진(NIM) 하락과 더딘 대출 성장에 따른 이자이익 감소로 순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 중. 운수창고는 컨테이너 해운의 운임 약세와 물동량 감소가 감익의 주요인으로 판단

그림 3. 2주간 업종별 순이익 추정치 증감률



참고: 업종구분은 MKF500기준, 순이익은 12개월 예상치, 순이익 증가율 10월 2일 대비 10월 12일 기준
시장평균은 MKF500 기업 중 실적 추정치가 존재하는 206개 기업 기준

자료: Fnguide

LG생명과학, 신약 모멘텀 부각

| LG생명과학은 1) 당뇨병 치료제 ‘제미글로’ 신약 허가 취득하며 국내 매출 본격화 및 글로벌 성장 잠재력 부각, 2) 화이자社와의 제네릭 사업 전략적 제휴에 따른 이익 증가 효과 반영

| 대우인터내셔널은 1) 미얀마 가스전 상업생산 및 육상 파이프라인의 수익 가치 재평가, 2) 최 대주주 POSCO의 철강 생산능력 증대에 따른 철강 트레이딩 물량 증가로 이익 추정치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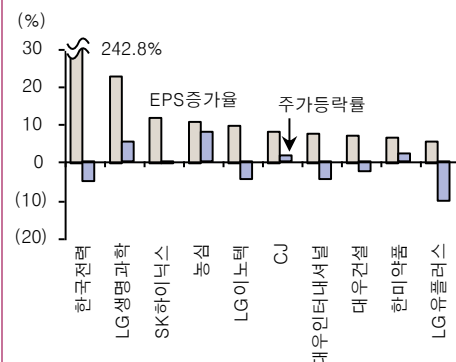
2주간 EPS 추정치 상향조정 종목

순위	종목명	EPS 추정치 (10/2, 원)	EPS 추정치 (10/12, 원)	EPS 증가율 (%)	PER (배)	현재가 (원)
1	한국전력	144	495	242.8	53.4	26,450
2	LG생명과학	551	675	22.5	70.0	49,500
3	SK하이닉스	1,082	1,206	11.5	19.0	22,550
4	농심	17,755	19,619	10.5	13.8	285,000
5	LG이노텍	4,691	5,151	9.8	14.9	77,000
6	CJ	9,348	10,105	8.1	9.9	102,000
7	대우인터내셔널	1,962	2,108	7.4	19.6	40,000
8	대우건설	825	883	7.1	11.4	10,150
9	한미약품	877	933	6.4	94.1	95,700
10	LG유플러스	709	749	5.7	8.8	6,500
11	지역난방공사	10,163	10,718	5.5	6.6	71,000
12	효성	7,314	7,680	5.0	7.3	56,500
13	LIG손해보험	4,792	5,008	4.5	5.0	26,000
14	베이직하우스	1,437	1,502	4.5	9.1	14,000
15	LG디스플레이	1,972	2,054	4.2	13.2	27,150
16	하이마트	5,485	5,710	4.1	12.6	74,200
17	풍산	3,752	3,898	3.9	8.4	32,100
18	엔씨소프트	13,702	14,222	3.8	15.1	219,000
19	SKC	4,935	5,113	3.6	8.9	45,300
20	S-Oil	9,830	10,146	3.2	9.9	99,600

참고: EPS는 12개월 예상치, EPS증가율 10월 2일 ~ 10월 12일 기준, 현재가 10월 12일 종가기준
ELW 발행 및 유동성공급 - 한국전력, SK하이닉스 / 1% 이상 자본보유 - 효성, LG이노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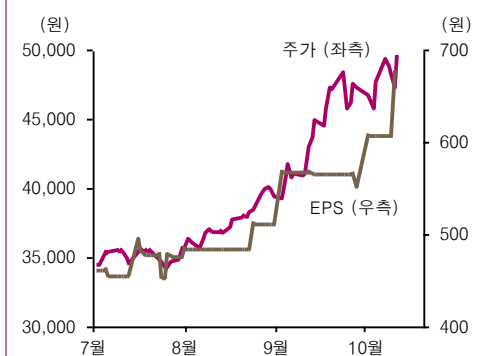
자료: Fnguide

그림 4. EPS 증가율 및 주가 등락률



참고: EPS는 12개월 예상치
자료: 한국거래소, Fnguide

그림 5. LG생명과학 주가 및 EPS 변경 추이



참고: EPS는 12개월 예상치
자료: 한국거래소, Fnguide

마켓 모니터

김 기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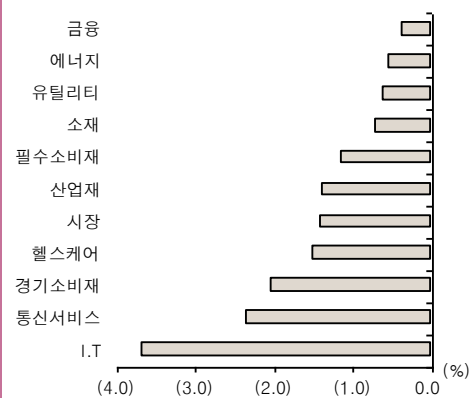
02-2020-7090

kibaehahu.kim@samsung.com

글로벌 증시, 경기 둔화로 투자심리 위축되며 하락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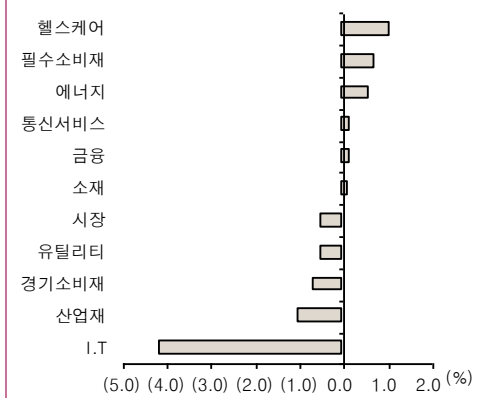
| 세계은행과 IMF가 잇따라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약화되며 글로벌 증시는 2주만에 하락 전환. 경기 둔화에 민감한 IT·경기소비재·산업재 업종의 하락이 두드러지는 모습

그림 1. 선진시장 주간 등락률



참조: 현지 통화기준, 10월 4일~10월 11일 기준
자료: Thomson Reuters

그림 2. 신흥시장 주간 등락률



참조: 현지 통화기준, 10월 4일~10월 11일 기준
자료: Thomson Reuters

글로벌 섹터 valuation

	2012E			2013E		
	P/E (배)	PBR (배)	EPS 성장률 (%)	P/E (배)	PBR (배)	EPS 성장률 (%)
World	13.0	1.6	5.3	11.6	1.5	12.4
선진시장	13.3	1.7	5.3	11.9	1.5	12.3
신흥시장	11.1	1.5	5.4	9.8	1.4	12.7
아시아 (일본제외)	12.5	1.6	6.5	11.3	1.5	11.0
KOREA*	9.6	1.2	33.7	8.2	1.1	17.5
에너지	9.9	1.1	(40.0)	7.7	1.0	29.2
소재	10.5	1.0	(9.4)	8.6	0.9	21.3
화학	11.0	1.4	(12.3)	8.7	1.3	25.9
산업재	10.6	1.2	22.8	8.9	1.0	18.1
기계	8.3	1.0	(2.7)	7.2	0.9	16.1
건설	10.0	1.2	18.9	8.2	1.1	21.2
경기소비재	7.4	1.4	89.4	6.6	1.1	11.6
자동차	6.8	1.4	81.0	6.2	1.2	9.9
필수소비재	17.2	2.0	20.1	15.2	1.8	13.5
제약	22.3	2.9	15.5	16.4	2.5	35.8
금융	7.0	0.7	2.3	7.1	0.7	(1.5)
IT	10.6	1.7	66.5	8.5	1.5	24.5
통신서비스	11.5	0.8	(17.4)	8.1	0.8	42.3
유틸리티	n/a	0.4	n/a	19.1	0.4	n/a

참고: 10월 11일 종가기준. * KOREA는 10월 12일 종가기준

자료: I/B/E/S, Thomson Reuters, Wisefn, 삼성증권

CJ제일제당, 가공식품 성장의 수혜주

- | CJ제일제당은 1) 동사 영업이익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내 가공식품 부문의 시장 확대에 인한 향후 안정적 실적 성장 기대 점증, 2) 곡물가격 하락 및 원화강세에 따른 원가 개선 기대로 긍정적 투자심리가 확대
- | 롯데쇼핑은 1) 국내 최대 가전 유통업체인 하이마트 인수 성공으로, 동사가 보유한 디지털 파크와 하이마트 간 합병을 통한 시너지효과 기대, 2) 2013년 예상 실적기준으로 주당수익비율(PER)이 8.8배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며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

1주간 KOSPI200 종목 추이

종목	BEST PERFORMANCE STOCKS			WORST PERFORMANCE STOCKS		
	종목	1W	YTD	종목	1W	YTD
에너지	한국셀석유	2.3	22.6	SK 이노베이션	(4.0)	9.9
소재	SK 케미칼	8.3	8.1	세아베스틸	(11.8)	(28.8)
	화학 SK 케미칼	8.3	8.1	한화케미칼	(11.0)	(24.0)
철강 및 비철금속	영풍	0.1	1.7	세아베스틸	(11.8)	(28.8)
산업재	대한전선	13.4	(38.6)	현대엘리베이터	(10.9)	(33.1)
	건설 대우건설	1.5	(3.3)	삼성엔지니어링	(9.8)	(15.6)
	조선 STX 조선해양	(1.1)	(20.5)	삼성중공업	(8.2)	21.0
	운송 CJ 대한통운	0.0	44.0	현대상선	(6.0)	0.4
경기소비재	대교	9.0	10.9	베이직하우스	(10.0)	(17.9)
	자동차 쌍용차	8.9	12.8	세종공업	(7.1)	19.1
	유통 롯데쇼핑	7.8	0.2	신세계	0.2	(12.9)
필수소비재	CJ 제일제당	12.0	19.5	빙그레	(3.8)	69.5
제약	대웅제약	12.1	49.1	일양약품	(8.0)	(21.7)
금융	삼성카드	0.7	7.8	대우증권	(6.7)	13.5
	은행 BS 금융지주	(1.2)	11.3	하나금융지주	(6.1)	(10.4)
	증권 미래에셋증권	(3.1)	2.9	대우증권	(6.7)	13.5
	보험 삼성생명	(0.9)	17.3	대한생명	(2.8)	0.3
IT	동부하이텍	3.6	3.3	엔씨소프트	(10.3)	(28.8)
	하드웨어 대덕전자	(2.9)	(11.0)	일진머티리얼즈	(9.8)	(41.4)
	소프트웨어 SK C&C	(1.0)	(14.1)	엔씨소프트	(10.3)	(28.8)
	반도체 동부하이텍	3.6	3.3	삼성전자	(5.4)	22.5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1.1	10.8	삼성 SDI	(5.4)	10.9
통신서비스	SK 텔레콤	1.4	4.6	LG 유플러스	(6.7)	(12.2)
유틸리티	한전기술	0.3	(21.3)	한국전력	(4.2)	3.5
KOSPI200	대한전선	13.4	(38.6)	세아베스틸	(11.8)	(28.8)

참고: 10월 5일 ~ 10월 12일 기준,
 ELW 발행 및 유통성 공급 - 한국전력, SK이노베이션,
 계열사 -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카드,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자료: Wisefn, 삼성증권

기술적 분석으로 증시보기: 레벨 다운된 박스권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곽 중 보

02-2020-7032

jungbo.kwak@samsung.com

| 한국 증시 전망: 제한된 단기 반등

- 지난 주 리뷰: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외국인 매도와 옵션 만기일 관련 프로그램 매물 출회 영향으로 -61.91pt (-3.10%)인 1,933.26pt 마감
- 이번 주 전망: 주초 발표 예정된 미국 주택지표들의 개선이 예상되고, 지난 주 가파른 조정에 따른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맞물리며 단기 반등을 시도할 전망. 그러나 18일(목) 중국의 3분기 GDP 발표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3분기 어닝시즌 돌입에 따른 기업 감익 가능성, 기술적 강세 신호 소멸 영향 등으로 반등폭은 제한될 전망
- KOSPI: 삼각 수렴대 상단을 4주 만에 하회하고, 9/14일 상승 갭과 단기 상승추세선을 이탈해 강세 신호 소멸됨. 그러나 단기 급락에 따른 제한된 반등 정도는 가능할 전망
- KOSDAQ: 일봉에서 N자형 상승 패턴이 나타나며 강세 신호가 뚜렷. 그러나 주봉 중요 지수대에 근접하는 가운데 과열 신호도 나타나고 있어 상승폭은 제한될 전망

그림 1. KOSPI 주봉



참고: 로그스케일
자료: 삼성증권

그림 2. KOSDAQ 주봉



참고: 로그스케일
자료: 삼성증권

그림 3. KOSPI 일봉



자료: 삼성증권

그림 4. KOSDAQ 일봉



자료: 삼성증권

| 업종 전망: 의약품, 음식료 관심

· 관심업종

- 의약품 일봉: 전고점 돌파 후 상승하는 패턴이 반복되며 강세 신호 뚜렷해, 상승 이어질 전망
- 음식료 일봉: 사상최고지수를 돌파한 후 N자형 상승 패턴이 나타나, 상승 이어질 전망

· 주요업종

- 전기전자 일봉: 삼각 수렴 패턴 상단과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했지만, 하단 지지력이 기대되어 반등을 재개할 전망
- 화학 일봉: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며 강세 신호 소멸. 그러나 상승 갭의 지지력과 기술적 반등이 맞물리고 있어 제한된 반등은 가능할 전망

관심업종

그림 5. 의약품 일봉



자료: 삼성증권

그림 6. 음식료 일봉



자료: 삼성증권

주요업종

그림 7. 전기전자 일봉



자료: 삼성증권

그림 8. 화학 일봉



자료: 삼성증권

| 차트 관심주

- 삼성증권 실시간 종목검색 N자형상승, 가격대돌파, 정배열상승 대표종목

그림 9. 삼성정밀화학 일봉



그림 10. 롯데쇼핑 일봉



그림 11. KT&G 일봉



그림 12. 한미약품 일봉



그림 13. 동부화재 일봉



그림 14. 강원랜드 일봉



자료: 삼성증권

자료: 삼성증권

| 아시아 증시: 중국 · 홍콩 상승, 일본 · 대만 하락

- 지난 주 리뷰: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일본과 대만 증시는 하락. 중국과 홍콩은 경기부양책 시행 기대로 상승
- 이번 주 전망
 - 중국 상해종합 주봉: 하락 추세선 영향으로 반등은 제한될 전망
 - 일본 NIKKEI 225 일봉: 상승 추세선을 하향 이탈하고 단기 MACD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되며, 약세 신호가 뚜렷해 하락 이어질 전망
 - 대만 대만지수 일봉: 상승추세선과 중요 지수대 7,536pt를 하향 이탈해 하락 예상
 - 홍콩 항셱 일봉: 상승 추세대와 상승 갭이 유지되며 강세 신호 지속. 그러나 채널 상단 저항으로 상승폭은 제한될 전망

그림 15. 중국 상해종합 주봉



참고: 로그스케일
자료: 삼성증권

그림 16. 일본 NIKKEI 225 일봉



참고: 로그스케일
자료: 삼성증권

그림 17. 대만 대만지수 일봉



참고: 로그스케일
자료: 삼성증권

그림 18. 홍콩 항셱지수 일봉



참고: 로그스케일
자료: 삼성증권

매크로 지표

김 용 구

02-2020-70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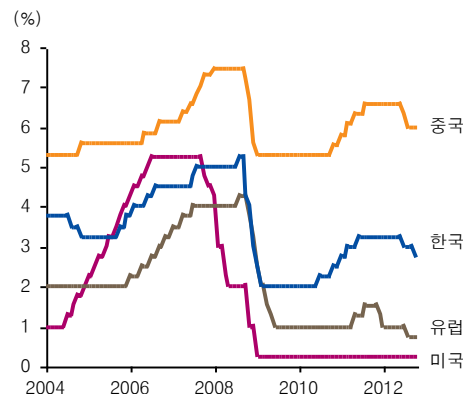
ygno.1.kim@samsung.com

| Macro Weekly: Quo Vadis(쿠오 바디스), Korea?

- 전주 11일, 한국은행의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시장의 기대대로 기준금리를 25bp 인하.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부진과 내수소비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하 결정으로 판단. IMF·세계은행의 한국 및 글로벌 경제성장률 하향조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단초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금주 발표될 미국·중국의 경제지표 개선 여부 관심
- 중국 물가는 지속 하락. 이로 인해 통화당국 운신의 폭은 확대되고, 소매판매 개선으로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질 수 있음. 금주 발표될 미국 생산지표가 호조세로 확인될 경우, 주택시장의 개선과 더해지며 글로벌 매크로 불확실성은 다소간 누그러질 수 있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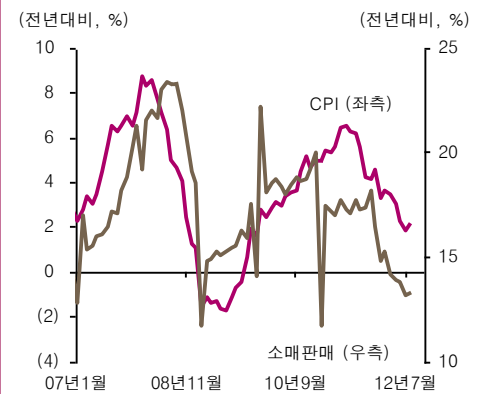
| 주요 매크로 지표

그림 1. 주요국 기준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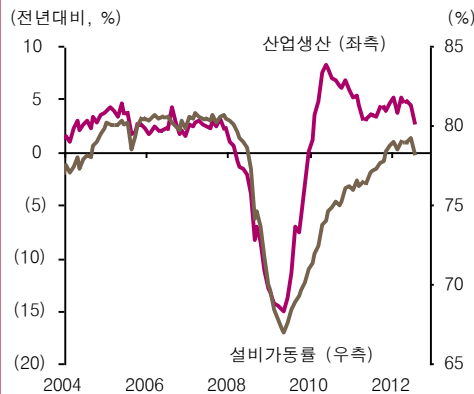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그림 2. 중국 물가 및 소매판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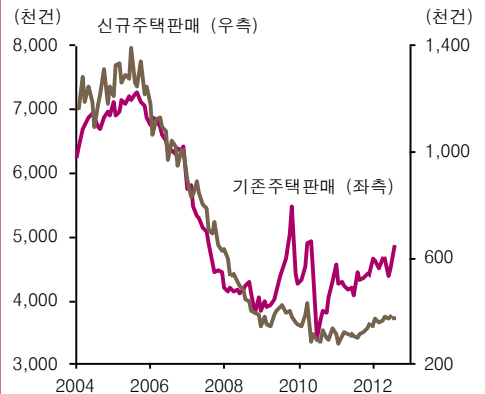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그림 3. 미국의 산업생산 및 설비 가동률



자료: Thomson Reuters

그림 4. 미국 주택판매 지표 추이



자료: Thomson Reuters

자금시장

김 기 배

02-2020-7090

kibaehahu.kim@samsung.com

| 머니 포커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외국인 매도세 전환

- 국내 자금 동향: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약화.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계 자금의 매도세가 두드러지면서, 코스피는 하락 마감.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는 환매 흐름이 지속되면서, 주간으로 약 3,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순유출
- 해외 자금 동향: 글로벌 뮤추얼 펀드로는 5주 연속으로 자금이 순유입. 선진국 관련 뮤추얼 펀드로는 서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약 5억 달러가 순유입. 신흥국 관련 뮤추얼 펀드로도 아시아(일본 제외) 지역을 중심으로 약 8억 달러가 순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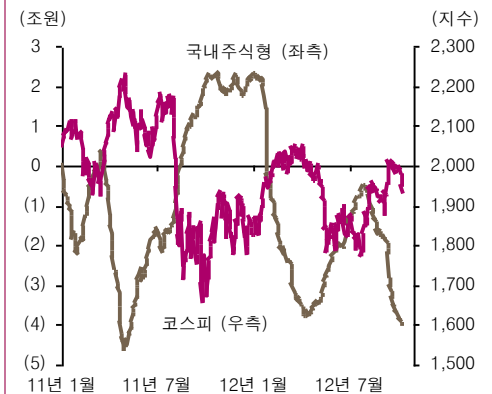
| 주요 증시주변 자금동향

그림 1.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누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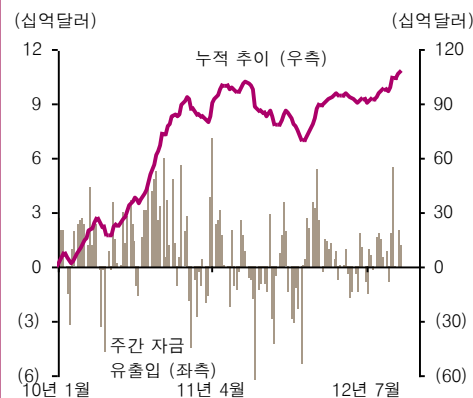
참고: 2012년 1월 이후 누적
자료: 한국거래소

그림 2. 국내 주식형 펀드의 순수 자금 유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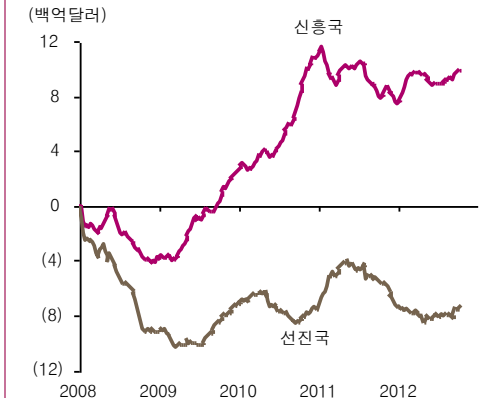
참고: 2011년 1월 이후 누적
자료: 한국거래소

그림 3. 해외 뮤추얼펀드 중 한국관련펀드 자금 동향



참고: 2010년 1월 이후 누적
자료: EPFR(Emerging Portfolio Fund Re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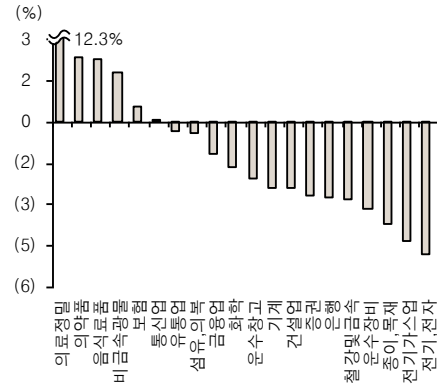
그림 4. 선진국 신흥국 관련 해외 뮤추얼펀드 자금 동향



참고: 2008년 1월 이후 누적
자료: EPFR(Emerging Portfolio Fund Re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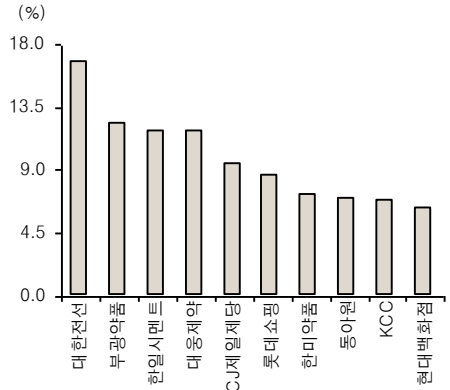
주간증시동향

그림 1. KOSPI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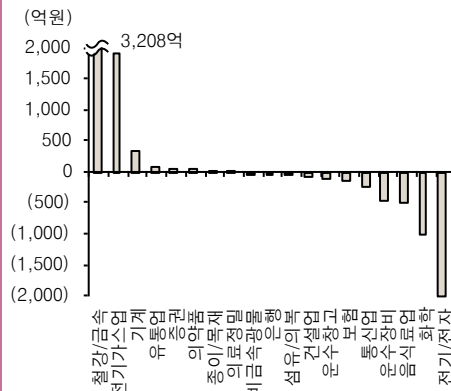
참고: 2012년 10월 8일 ~ 10월 12일
자료: 한국거래소

그림 2. KOSPI200 주간 상승률 상위 10 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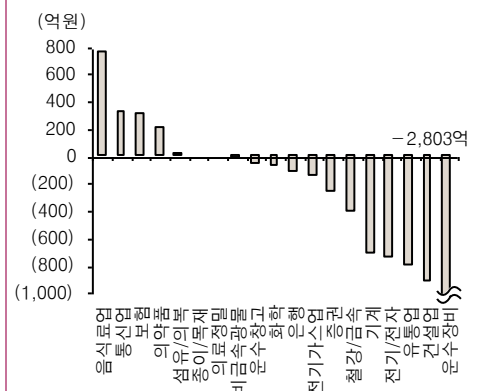
참고: 2012년 10월 8일 ~ 10월 12일
자료: 한국거래소

그림 3. 주간 업종별 외국인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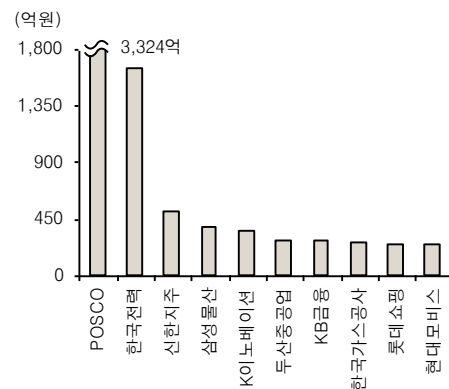
참고: 2012년 10월 8일 ~ 10월 12일
자료: 한국거래소

그림 4. 주간 업종별 기관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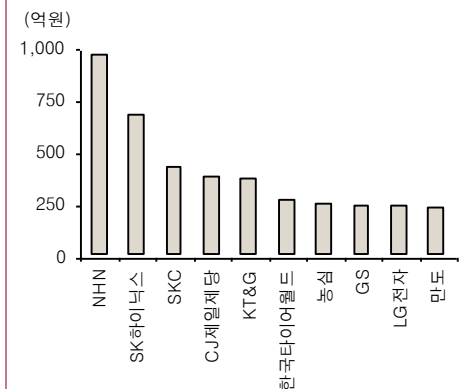
참고: 2012년 10월 8일 ~ 10월 12일
자료: 한국거래소

그림 5. 주간 외국인 순매수 상위 10종목



참고: 2012년 10월 8일 ~ 10월 12일
자료: 한국거래소

그림 6. 주간 기관 순매수 상위 10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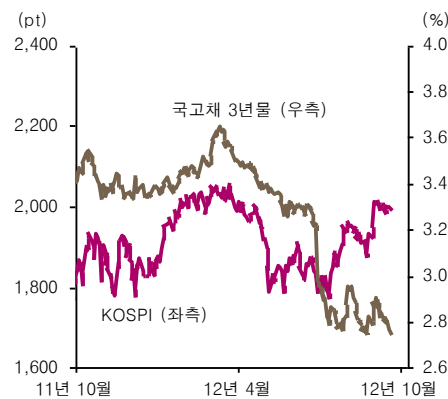


참고: 2012년 10월 8일 ~ 10월 12일
자료: 한국거래소

(십억원)	지표	금주말(10/12)	전주말(10/5)	주간증감	8월말(8/31)
국내 주식	종합주가지수	1,933.26	1,995.17	-61.91(-3.1%)	1,905.12
	거래량(백만주)	390	672	-283	659
	거래대금(십억원)	3,718	4,400	-682	4,472
	KOSDAQ지수	539.86	535.82	+4.04(+0.8%)	508.35
	거래량(백만주)	589	589	0	696
	거래대금(십억원)	2,674	2,765	-91	2,401
채권	국고채(3년)	2.77	2.75	0.02	2.76
	회사채(3년 AA-)	3.28	3.27	0.01	3.27
	CD(91일)	2.87	3.09	-0.22	3.16
외환	원/달러	1,111.20	1,111.30	-0.10	1,134.70
	엔/달러	78.42	78.38	0.04	78.53
	원/100엔	1,416.44	1,417.47	-1.03	1,446.06
은행권*	요구불예금	75,715	80,281	-4,566	74,339
	저축성예금	859,938	857,711	2,227	856,748
	금전신탁	110,225	110,825	-600	112,595
증권**	고객예탁금	18,670	19,369	-699	18,426
투신권**	주식형펀드	143,849	89,468	54,381	99,351
	혼합형펀드	35,437	12,262	23,175	29,209
	채권형펀드	240,437	11,899	228,538	47,805
	MMF	73,472	61,247	12,225	74,9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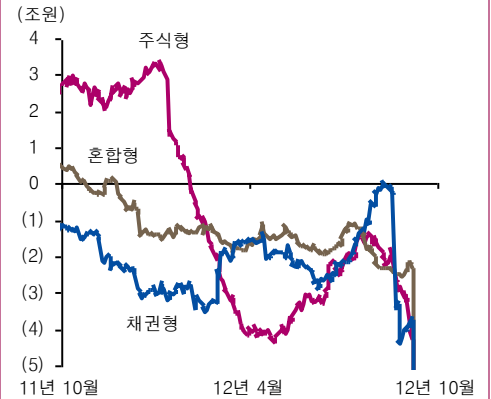
참고: * 10월 9일; ** 10월 10일 기준

주가지수와 시중금리



자료: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유형별 펀드 자금 동향



참고: 2011년 10월 이후 증감액 누적치. 채권형 펀드 설정 잔액은 실질자금 유출이 아닌 기준 변경 영향
자료: 금융투자협회

증시캘린더

MON	TUE	WED	THU	FRI
10/15 (미국) 10월 뉴욕주 제조업지수 (E -4.8/ P-10.41) 9월 소매판매액지수 (E 0.7%/ P 0.9%) (중국) 9월 소비자물가지수 (E 1.9%/ P 2.0%) 9월 생산자물가지수 (E -3.5%/ P-3.5%) (일본) 8월 산업생산(확정) (E -/ P-1.3%) 프랑스 국제입찰 *실적 발표예정일 韓 - SBS, 두산중공업 등 美 - Citigroup 등	16 (미국) 9월 소비자물가지수(전월대비) (E 0.5%/ P 0.6%) 8월 총 순자본유출입흐름(십억달러) (E -/ P 73.7) 9월 산업생산 (E 0.2%/ P -1.2%) 9월 설비가동률 (E 78.3%/ P 78.2%) (한국) 9월 수출 물가지수(전월대비) (E -/ P 0.2%) 9월 수입 물가지수(전월대비) (E -/ P 0.3%) (유럽) 9월 유로권 CPI(전년대비) (E 2.7%/ P 2.7%) 그리스·스페인 국제입찰 *실적 발표예정일 美 - Goldman Sachs, IBM, Intel 등	17 (미국) 주간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E -/ P -1.2%) 9월 주택착공건수(천건) (E 770/ P750) 9월 건축허가(천건) (E 810/ P801) (한국) 9월 백화점 매출(전년대비) (E -/ P-6.9%) 9월 할인점 매출(전년대비) (E -/ P-3.3%) 독일·포르투갈 국제입찰 *실적 발표예정일 韓 - OCI 등 美 - American Express 등	18 (미국) 10월 필라델피아 연준지수 (E 0.0/ P-1.9) 9월 경기선행지수 (E 0.0/ P -1.9%)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천건) (E -/ P339) (중국) 9월 산업생산(전년대비) (E 9.0%/ P 8.9%) 3분기 실질GDP(전년대비) (E 7.4%/ P 7.6%) EU 정상회의(18-19일) 스페인·프랑스·영국 국제입찰 *실적 발표예정일 韓 - KT&G 등 美 - Morgan Stanley, Google, Microsoft 등	19 (미국) 9월 기존주택매매 (E 4.70/ P4.82) EU 정상회의(18-19일) *실적 발표예정일 韓 - LG화학, 금호석유, 심텍, 인터플렉스 등 美 - General Electric, McDonald's 등
22	23	24	25	26
	美 10월 리치몬드연방제조업지수 유 10월 유로권 소비자대지수 美 10월 FOMC 회의 *휴장정보 홍콩 - 중앙절 태국 - 현충일	美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9월 신규주택매매 9월 주택가격지수 10월 FOMC 금리결정 中 10월 HSBC플레이세제조업PMI 유 10월 PMI 제조업·서비스 美 10월 FOMC 회의 *휴장정보 인도 - Dussera 탄신일	美 9월 시카고연방국가활동지수 9월 내구재주문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9월 미결주택매매 유 9월 유로권 M3	美 3분기 GDP분기별대비(예상) 3분기 개인소비 10월 소비심리평가지수(확정) 韓 3분기 GDP(잠정)
29	30	31	11/1	2
美 9월 개인소득 9월 개인소비지수 10월 달라스연준제조업활동 韓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	美 10월 소비자대지수 韓 9월 경상수지·상품수지 日 9월 산업생산(확정) 일본은행 정책금리 공시	美 주간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10월 ADP취업자변동 3분기 고용비용지수 10월 시카고 구매자협회 韓 9월 산업생산 유 10월 유로권소비자대지수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10월 ISM 제조업지수 10월 ISM 구매물가지수 9월 건설지출 韓 10월 소비자물가지수 10월 대외무역 수출·수입 中 10월 제조업PMI 10월 HSBC 제조업PMI	美 10월 비농업부문고용자수변동 10월 제조업임금변동 10월 실업률 9월 제조업 수주 *휴장정보 브라질 - All Souls' Day

자료: Bloomberg

참고: 韓: 한국, 美: 미국, 유: 유로존, 中: 중국, 日: 일본, 독: 독일, 영: 영국 / 현지시간 기준

- ※ 당사는 위험성, 수익성, 수수료, 해지방법 등 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하기 전 반드시 영업직원으로부터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소개된 상품 중 일부는 고객님의 투자성향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니, 투자하기 전 반드시 영업직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펀드는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ELS는 원본 손실 위험이 있으며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아 유동성이 작습니다. ELS는 복합 파생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손익구조, 투자위험 등에 관해 세부(핵심)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십시오. ELS는 고객요청으로 중도상환시 해지에 대한 비용 등이 발생하여 원금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은 기초자산의 변동에 따라 원금손실 때로는 원금전부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아, 유동성이 매우 제한됩니다.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시, 본 증권의 공정가액에서 (청산에 필요한 비용 등의) 중도상환수수료를 공제금액을 지급하여, 이 경우 원금의 상당액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추가연계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원리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신용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모든 수익률은 세전(before tax) 기준이며, 수익자의 세율에 따라 세후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청약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ELS투자는 투자설명서나 간이 설명서에 따릅니다.
- ※ 삼성POP골든랩은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일임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상세한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신 후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삼성 POP골든랩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삼성 POP골든랩 서비스는 계좌별로 관리, 운용되며 각 계좌별 수익률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미공개 정보를 알 수 있는 직원, 주요주주 및 대량보유자가 해당 기업의 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할 경우 단기매매차익반환 및 지분 변동의 보고의무 등이 발생하므로, 최초 가입 시 투자자가 위의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고 임원 승진, 타상장사 임원으로 이동 등의 신상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해당 내용을 당사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신물가연동채권의 이자는 물가에 연동되어 증가하거나 감소하므로 물가하락에 의한 이자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으며,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은행환산세전만기수익률은 같은 기간 동일한 수익을 올리기 위한 연평균 은행예금 금리입니다. 상황에 따라 판매금리와 가격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확인하신 후 매입하시기 바랍니다. 신물가연동채권은 중도매매 가능하며 중도매도가격은 시장금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금리상승으로 인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매수자에게 귀속됩니다. 발행사의 사정에 따라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손실할 수 있으며, 당사는 본 채권에 대해 중도환매 및 원리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create[^] with you 삼성증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250번지 삼성본관빌딩 14층 투자정보팀 / Tel: 02 2020 8000
- 삼성증권 지점 대표번호 1588 2323 / 1544 1544 ■ 고객센터 080 911 0900